

# 광주은행 한·중산단 조성 PF 참여 무안 기업도시 개발 탄력

광주은행이 무안 한·중산단단지(한·중산단)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은 12일, 광주은행이 한·중산단 조성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참여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한·중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출자자들이 PF를 통해 마련해야 하는 5천억 원 가운데 일정액

을 출자할 계획이며, 현재 국내 출자사 주관사인 농협 측을 상대로 참여액수와 비율, 시기 등을 놓고 협의 중이다. 한·중산단 총 조성사업비는 1조7천억 원이다.

그동안 한·중산단 PF는 중국 측의 경우 국책은행을 통해 사업비 8천억 원을 마련했으나 국내 출자는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금융기관들의 외면으로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중국 측 출자자들이 PF 참여율을 전체 사업비의 80%까지 부

담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으며, 이 같은 제안이 현실화되면 국내 출자사의 부담이 크게 줄어 금융권의 태도 변화가 기대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의 비협조로 한·중산단 조성사업이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지역대표 금융기관인 광주은행이 투자를 결정한 만큼 한·중산단 조성사업이 조만간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군 무안읍, 청계·현경면 일원

17.7km에 들어서는 한·중산단 조성에는 모두 1조7천억 원이 투입되며 산단단지와 차이나시티, 도매유통단지, 국제대학단지 등이 들어서 5만여 명이 상주하는 도시로 건설된다. 한·중산단에는 중국 투자사인 동태화한유한공사에서 51%를 투자하고 국내에서는 금융·건설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농협과 두산중공업, 전남개발공사, 무안군 등이 나머지를 투자해 참여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1ℓ 에 100km 가는 ‘꿈의 車’ 나온다

## 美 GM 내년말 출시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는 내년말 시판예정인 전기자동차 시보레 볼트(사진)가 휘발유 1ℓ 로 약 100km를 주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GM의 프리츠 헨더슨 최고경영자(CEO)는 휘발유를 보조 연료로 사용하면서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주요 동력원으로 한 시보레 볼트 모델의 모의 주행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휘발유 1갤런당 230마일(ℓ 당 98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시보레 볼트는 출발 후 40마일(64km)까지를 오로지 배터리에 의존해 주행할 수 있으며, 이후 소형 가솔린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서 전기를 생산하면 총 주행거리는 300마

일(483km)로 늘어난다.

예컨대 볼트를 이용해 도심지의 출퇴근에 하루 50마일을 주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첫 40마일은 배터리로만 운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10마일을 더 달리는 데는 휘발유 0.2갤런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면 갤런당 주행거리는 250마일에 달한다.

헨더슨 CEO는 볼트의 배터리 충전비용은 kWh당 5센트(한화 60원) 정도이며 하루에 약 40센트(한화 약 500원)의 비용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 ‘시민대상’ 뽑는다

### 사회봉사 등 5개 부문

광주시가 사회봉사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공모하는 ‘제23회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접수 오는 31일까지 마감한다.

광주시민대상은 사회봉사, 학술, 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등에서 학문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의 명예선양과 지역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들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후보자는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각급 기관장, 사회단체장, 대학 이상의 총·학장 또는 시민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수상자는 적격 여부 조사와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오는 11월1일 제44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올 하반기 시정목표

### ‘서민경제살리기’ 올인

광주시가 올 하반기 시정목표를 ‘서민경제 살리기’로 정했다. 상반기 1조5천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나선 시는 이러한 집행의 효과가 밑바닥까지 고루 분산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등의 구상에 들어가 조만간 ‘서민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중 발족할 시정홍보단을 맡은 조용진 기획관리실장과 최장수 자치행정국장장을 맡고 있는 문인 자치행정국장, 최현주 환경복지국장, 박해구 비서실장과 조영석 비서관, 박락진 공보관 등은 실무와 정부, 홍보 능력을 갖춘 인사들로, 향후 이러한 박 시장의 의지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제주평화포럼’ 열려

한승수 국무총리가 12일 해비치호텔&리조트 제주에서 열린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해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공공의 비전을 향하여’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승수 국무총리가 12일 해비치호텔&리조트 제주에서 열린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해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공공의 비전을 향하여’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빛의만평

- 김중두



적당히 채워줘야 할것 아닌가

## 목포~광양고속도 고흥 나들목 설치

## 공정위, 신문고시 3년후 재검토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신문고시’가 존재 논란 끝에 유지로 결론났다. 대신 3년 동안 더 운영한 뒤 폐지 여부가 재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호열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개정하지 않은 각종 훈령·예규·규칙을 정비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이날 신문고시를 심의해 일단 폐지한 뒤 곧바로 다시 살려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

위는 이 이후에 폐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신문시장이 신문고시가 없어도 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여야가 신문법상의 무가치와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을 존중했다”며 신문고시 존치 배경을 설명했다.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치와 경품 제공, 신문 구독 강요,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목표량 확대 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신문고시 유지 결정에 따라 신문사들은 이 같은 규제를 계속 받게 됐다.

/연합뉴스

타당성 논란이 일었던 목포~광양고속도로 흥 나들목(IC)이 설치된다.

12일 전남도와 고속IC건설 범국민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목포~광양 고속도로 흥 나들목 추가 설치와 관련, 도로공사 등 기관과 협의해 고공과 순철을 잇는 진출입로 설치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총 2조74억원을 들여 106.8km 길이로 2011년 완공 예정인 이 고속도로에는 영암과 강진, 장흥, 보성, 벌교, 남순천, 해동 등 6개 나들목이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흥 지역이 빠져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개발공사 사장 김주열씨

제3대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한국토지공사 출신인 김주열씨(55)가 내정됐다.

김 사장 내정자는 강진출신으로 조선대 토목학과 연세대 산업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74년 광주시 토목공무원으로 시작해 1980년 토지공사에 입사해 대불공단개발부장, 신도시



23일 열린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분실공고**

회사인수원함

명리철학 수강생

노랑뿔리연구소

광주·전남지역 광고인과정 수강생 모집

2009년 8월 13일

광주대 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광주대 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광주대 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사무소

011-641-0925

062515-4985